

마재마을 답사길



다산 삼거리
문도사
文度祠

정약용
丁若鏞 묘

유산
酉山

정약현
丁若鉉 묘

쇠내
峽川 1

여유당
與猶堂

임청정터
臨淸亭址

다산이 활쏘기 하던 장소

다산로 526번길

철마산
鐵馬山

쇠내
峽川 2

실학박물관

열수
測水 (한강)

천일각

거중기

마재마을 답사길 출발

혼천의

다산정원

생태공원

생태공원

소천나루

가볍게 그려본 초계도 戲作苕溪圖

푸른 산줄기 휘감긴 곳에 철마鐵馬가 서 있고
 깎아지른 기암奇巖에서 금부金虎가 날아가며
 남자주藍子洲 가에는 방초芳草가 푸르르고
 석호정石湖亭 북쪽에는 맑은 모래 깔렸으며
 저 돛은 필탄筆灘을 지나서 부르는 듯
 나룻배는 귀음龜陰을 가면서 부르는 듯
 검산點山은 절반이나 구름 속에 들어 있고
 백병봉白屏峰은 저 멀리 사양峯陽을 지고 섰으며
 하늘 가에 높다랗게 보이는 절과 함께
 물 모이는 곳 지세가 잘도나 어울리네
 소나무 노송나무 덮고 있는 것 우리 정자이고
 뜰에 가득 배꽃 핀 곳 저건 우리 집이지
 (다산시문집 제4권, 시)

마재마을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태어나고 돌아가신 마을로 생가와 묘소가 이 곳에 있다.
 마재 또는 마현馬峴이란 이름은 근처의 '쇠밀산=철마산鐵馬山'에서 유래하고, 산이름은 산등마루
 에서 쥐만한 크기의 철마가 출토된 데서 유래한다.
 정약용은 '철마산나무꾼'이란 뜻의 '철마산초鐵馬山樵'라는 호를 쓰기도 했다. '철마초부樵夫',
 '철마산인山人'이라고도 하였다.

< 마재마을에 오면 꼭 들러야 할 곳 >

실학박물관과 다산정원



경기도에서 건립한 실학박물관에서는 여러 실학자의 핵심내용을 볼 수 있다. 정약용을 비롯한 성호학파 연암그룹 등의 실학을 일목요연하게 전시하고 있다. 매년 두 차례씩 이루어지고 있는 기획전도 관람할 수 있다. 다산 정원에서는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여유당 興猶堂



정약용의 생가. 1800년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고향에 돌아온 정약용은 당호를 여유당이라 지었다. <노자>에서 따온 이름인데, "겨울에 시내를 건너듯, 사망을 두려워하듯" 처신을 조심스럽게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다가온 화를 피하진 못했다. 생가는 을축년(1925년) 대홍수 때 휩쓸려 갔고, 후에 복원했다.

정약룡 丁若鏞 묘 墓



1762년 6월 16일(음력) 태어난 정약용은 1836년 2월 22일(음력)에 세상을 떠났다. 4월 1일 유명에 따라 여유당 뒤편 언덕에 장사를 지냈다. 부인 풍산 홍씨가 합장되어 있다.

문도사 文度祠



정약용 선생의 학문과 정신을 기리고 그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이다. 사당 이름은 시호에서 왔다. 1910년(융희 4) 7월 18일 정약용에게 정헌대부 규장각 제학(정3품)을 추증하고 문도공의 시호를 내렸다. 널리 배우고 많이 들은 것을 문문이라 하고, 일을 처리함에 의에 맞는 것을 도도라고 한다. 늦게나마 그의 학문을 인정한 것이다.

< 주위의 여러 곳 >



유산 酉山

정약용 생가인 여유당의 뒤편 산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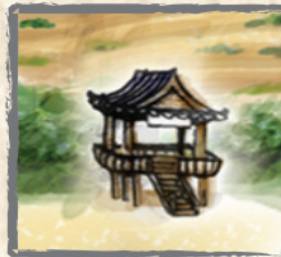
소내 (소내)

정약용 생가 앞에 흐르던 실개천이다. 기록엔 牛川(우천), 菴川(소천, 초천), 菴溪(소계, 초계) 등으로 되어 있다.



정약현 丁若鉉 묘 墓

여유당 동편에 정약용의 맏형인 정약현(1751~1821)의 묘가 있다.



임청정 터 臨淸亭址

임청정은 정약용의 5대조인 정시윤이 지은 정자이다. 후에 박문수가 얻어서 송정松亭이라고 불렀다.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열수 洑水 (한강)

정약용 생가(여유당)를 중심으로, 북쪽엔 마재성지와 능내역(폐역)이, 북서쪽엔 예봉산과 팔당역, 남양주시립박물관이 있다. 남쪽으로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팔당호를 이루고 한강이 되어 서쪽으로 흘러간다. 이 한강을 다산 선생은 열수洑水라 불렀다. 그리하여 자신의 호로 열수洑水 또는 열상노인洑上老人, 열수옹洑水翁을 쓰기도 했다.



실학박물관 www.silhakmuseum.or.kr
12283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747번길 16 Tel. 031 579 6000

마재마을 답사길

